



노사 모두가 힘을 합해 신속 복구하고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합시다!

노동조합은 먼저 금번 KT 아현사옥 통신구 화재 현장에서 분진 및 그을음과 싸워가며 밤낮 없이 복구에 매진하는 조합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일하는 KT라는 기업이 국민의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악재로 고객과 국민의 불신을 받는 뼈 아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작금의 재난적 상황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노사와 종사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내부가 합심해서 단결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사고를 틈 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떠넘기며 분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불신만 더욱 초래할 뿐입니다. 먼저 큰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과 국민의 피해부터 복구한 후, 향후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100년 통신역사의 KT와 노동조합을 만든 자랑스러운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고객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서로의 역량을 결집합시다.

노동조합은 피해복구가 완료되고 우리가 다시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